

튀르키예어 담화표지의 AI 기반 한국어 번역 고찰 —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아이딘(한국의외국어대학교)

유은미(양카라대학교)

1. 서론

담화표지는 실제 언어 사용에서 담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암시함으로써 청자의 이해를 돕는다(이유라와 유석훈, 2020, p. 384). 김향화(2001, p. 113)에서 담화표지를 상대방에게 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담화 책략으로 정의하였다. 담화표지는 문장의 명제적 의미나 진리 조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명제적(non-propositional) 및 비진리조건적(non-truth-conditional) 특성으로 인해 실제 담화에서 쉽게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의 번역학 연구에서 번역하기 까다로운 영역으로 논의되어 왔다(김희자, 2002, p. 224; 유한내, 2014, p. 101; Brinton, 2010, p. 306; Furkó, 2014, p. 182; Hale, 1999, p. 80).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번역에서 담화표지를 생략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밝혔으며, 번역 시 그 기능이 충분히 재현되지 못해 원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의 의미가 왜곡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김지

* 본 논문은 2025년 10월 25일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한국언어문 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은, 2022; 이은령, 2022; Chaume, 2004; Furkó, 2014; Galiano, 2024; González, 2012).

담화표지의 번역은 단순한 의미 대응 차원을 넘어, 발화가 이루어지는 담화 상황과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담화의 전개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을 요구한다. 담화표지가 ST에서 수행하는 텍스트적 및 대인관계적 기능¹⁾과 그에 수반되는 화용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러한 의미와 뉘앙스를 도착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에서 재구성함으로써 화용론적 등가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담화표지 번역의 성패는 형태론적 대응 여부가 아니라, 담화 차원의 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한편 최근 신경망 기계번역(NMT)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번역의 속도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 이면에는 발화 상황이나 참여자 간의 관계와 같은 비언어적·화용적 맥락을 기계번역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종래의 AI 기반 기계번역 연구에 따르면, 거대언어 모델(LLM)은 대규모 말뭉치가 구축된 언어 쌍에서는 우수한 품질을 보이지만, 저자원 언어 쌍(low-resource language pairs)에서는 번역 성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한계를 지닌다(Hendy et al, 2023; Kumar et al., 2025; Li et al., 2025; Toraman, 2024). 튀르키예어의 경우 실사용자 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기계번역 연구를 위한 병렬 말뭉치가 제한적인 저자원 언어로 분류되며(Najafi & Varol, 2024; Toraman, 2024), 이에 따라 AI 번역 품질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발화의 흐름과 화자의 태도를 암시하는 비명제적 요소인 담화표지는, 튀르키예어와 같은 저자원 언어 환경에서 AI 번역 모델이 문장 간 관계와 화용론적 담화 맥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최적의 분석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NMT와 LLM이 튀르키예어 담화표지의 맥락적 의미와 화용적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어로 재현

1) 브린톤(Brinton, 1996)은 담화표지를 텍스트적 기능과 대인관계적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텍스트적 기능은 발화의 응집성과 관련되며, 대인관계적 기능은 발화자의 태도나 감정, 화제에 대한 평가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포함한다.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NMT 기반 번역 엔진으로 구글 번역을²⁾ 활용하고, 프롬프트를 통해 번역 품질을 조정할 수 있는 LLM 기반 모델로 ChatGPT³⁾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구글 번역과 ChatGPT의 프롬프트 유무에 따른 두 가지 번역 결과, 그리고 기존에 출판된 인간 번역본을 검토하여, 총 네 가지 TT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⁴⁾

본 연구는 튀르키예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의 대화문을 분석 자료로 삼아, NMT와 LLM의 담화표지 번역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LLM에서 프롬프트 개입이 담화표지의 화용적 재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저자원 언어 쌍 문학번역에서 AI 번역 도구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튀르키예어-한국어 언어 쌍의 번역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며, 담화표지의 번역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진전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튀르키예어-한국어 번역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화용적 등가 연구와 번역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담화표지 번역에 관한 연구

담화표지 번역에 관한 연구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핀란드어, 스웨덴

- 2) 주요 NMT 모델로 구글 번역, 네이버 파파고, DeepL이 있다. 이 중 네이버 파파고는 튀르키예어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원 언어 수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수와 접근성이 높은 구글 번역을 활용하였다.
- 3) 본 연구에서 OpenAI의 ChatGPT 5.2 무료 버전을 사용하였다. 구글 번역과 ChatGPT의 번역 결과물은 2026년 1월 2일부터 10일 사이에 도출된 결과이다. 4.2 절에서 개별 예문의 출력 날짜를 병기하겠다.
- 4) 인간 번역은 기계번역의 정확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 아닌, 담화표지가 실제 문학번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번역(reference translation)으로 활용되었다.

어, 중국어 등의 다양한 언어 쌍을 대상으로 축적되었으며, 연구 대상 또한 영상매체, 희곡, 소설, 통역 자료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 담화표지 번역에 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본 절에서는 튀르키예어를 제외한 여타 언어 조합의 선행연구를 연구 대상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영상매체 번역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유한내(2014), 우경조(2019), 박서영과 최희경(2019), 이은령(2022) 등, 해외에서는 솜(Chaume, 2004), 카피푸르(Kafipour, 2016), 크리블 등(Crible et al., 2019), 후(Hu, 2020), 디엠(Diem, 2023) 외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들은 공통으로 영상 번역에서 담화표지가 삭제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보고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영상 번역 특유의 시공간적 제약, 즉 글자 수 제한이나 발화 시간과 입 모양의 일치와 같은 제약 조건이 분석 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상 번역 연구에서 도출된 담화표지의 생략 양상을 일반적인 경향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희곡을 대상으로 한 김지은(2020, 2022), 크루거(Kruger, 2004), 타란티니와 베나티(Tarantini & Benatti, 2019)에서는 담화표지가 발화 의도와 인물의 감정, 상호작용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지은(2020, 2022)은 중국 희곡과 단막극을 분석함으로써, 영상매체가 아닌 텍스트 기반의 구어 담화에서도 담화표지 번역이 화용적 효과의 재현에 필수적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담화표지가 번역 과정에서 감탄사나 문장부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담화표지 번역이 단순한 어휘적 대응이나 생략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였다.

소설을 분석한 연구로 곤살레스(González, 2012)와 심란희(2025)가 있다. 이들은 각각 영어-스페인어와 한국어-중국어 번역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담화표지가 생략되거나 비담화표지 표현으로 대체될 경우, 담화 기능의 등가성이 부분적으로 손실될 수 있음을 거론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기계번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담화표지 번역의 중요성과 번역 전략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담화표지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략’을 누락이나 의미 손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 생략이 특정 담화 맥락에

서 ST의 화용적 의미와 담화적 분위기를 TT로 재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2.2 담화표지의 기계번역 연구

담화표지의 기계번역 양상을 고찰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본절에서 NMT와 LLM의 담화표지 번역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분석한 서미령(2019), 임소영과 임소정(2023), 마이어(Meier, 2024), 그리고 지암피에리(Giampieri, 2025) 총 4편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저자원 언어 쌍인 튀르키예어-한국어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차별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서미령(2019)은 담화표지 ‘아’를 대상으로 한중 인간 번역과 구글 번역 및 파파고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는 다수의 사례에서 TT에서 생략되거나 의미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왔으며, 이에 따라 TT의 자연스러움과 유창성이 저하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계번역이 담화표지의 화용적 기능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한계를 지님을 시사한다. 다만, 기계번역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할 때, 서미령(2019)의 결과를 현 단계의 모델 성능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는 데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담화표지 번역을 NMT 관점에서 다룬 초기 연구로서, MT의 화용론적 처리에 관한 후속 연구를 촉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임소영과 임소정(2023)은 구어체를 대상으로 한중 AI 번역에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카카오 i 번역, 파파고, 바이두, 텐센트, 유다오 번역기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담화표지 번역을 직접적으로 고찰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에서 추출한 발화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어체 번역 오류를 검토하였다. 오류 유형을 크게 어휘 층위, 통사 층위, 화용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화용 층위에서 담화표지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이어(Meier, 2024)는 독일어 양상 소사⁵⁾의 이탈리아어 번역을 인간 번

5) 담화표지를 지칭하는 용어는 양상 소사, 뉘앙스 불변회사, 화용표지 등으로 다양하다.

역과 NMT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으며 MT 엔진으로 구글 번역과 DeepL을 활용하였다. 인간 번역에서는 다양한 어휘와 구문을 활용하여 담화표지의 의미와 뉘앙스를 재현한 반면, NMT는 특정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인간 번역에서만 확인되는 어휘 대응도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기계번역이 담화적·화용적 의미를 제한된 방식으로만 처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담화표지의 NMT 양상을 분석한 소수의 연구 중 하나로 기계번역의 화용론적 처리 가능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어휘적 대응에만 집중하여 기계번역이 담화표지를 다양한 번역 기법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사적 및 화용적 고찰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지암피에리(2025)는 NMT와 LLM의 대화문 번역 성능을 비교·분석하면서 담화표지를 포함한 화용적 요소의 처리 양상을 함께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발췌한 이탈리아어 구어체 대화문을 DeepL, Gemini, ChatGPT를 활용해 영어로 번역한 뒤, 세 엔진이 구어 담화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재현하는지를 어휘적,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DeepL은 중의성을 띤 단어를 문맥에 따라 적절히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Giampieri, 2025, p. 277). 반면 ChatGPT와 Gemini는 ‘well, you know, I mean, like’ 등의 영어 담화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어 담화의 자연스러움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NMT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두 LLM 모두 ST에 없는 담화 기능을 추가하거나 담화표지를 과잉 사용하는 등의 양상을 보여, 전반적인 번역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인간 번역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최신 AI 번역 기술이 구어 담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재현하는지를 탐색한 이 연구는 AI의 대화문 번역 양상을 고찰하는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프롬프트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NMT와 LLM을 구별하는 핵심적 차이 중 하나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통해 번역 전략이나 문체적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산출 결과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암피에리(2025)에서 적용된 프롬프트를 보면, 비교적 단순한 지시문에 그쳐, 프롬프트 적용 여부에 따른 LLM 번역 성능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단일 프롬프트만이 사용되었을 뿐, 프롬프트 입력 전후의 결과를 대비한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았으며, 프롬프트의 구체성이나 복잡도에 따른 번역 품질의 편차 역시 검토되지 않았다.⁶⁾ 이러한 점에서 LLM이 지니는 출력물의 조절 가능성이 라는 핵심적 특성은 충분히 탐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담화표지가 AI 기반 기계번역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기존 연구들 또한 중국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와 같이 튀르키예어에 비해 고자원 언어로 분류될 수 있는 언어 쌍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튀르키예어-한국어 언어 쌍을 대상으로 문학 작품에서 발췌한 대화문을 분석 자료로 삼아 담화표지의 번역 양상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튀르키예 작가 아지즈 네신(Aziz Nesin)의 장편 소설 『생사불명 야샤르(Yaşar Ne Yaşar Ne Yaşamaz)』이다. 본래 12막의 라디오 극본으로 창작되어 연극과 드라마를 거쳐 1977년 소설로 출간된 이 작품은(Telek, 2023, pp. 65-67), 그 연극적 특성으로 인해 여타 소설에 비해 대화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총 21장으로 구성된 소설은 행정상 오류로 ‘생사불명’ 상태가 되어 온갖 부조리를 겪은 주인공 야샤르가 교도소 동기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구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저자 아지즈 네신은 화려한 수사적 표현보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을 지향하는 문체적 개성을 지닌다(İspir, 2006, p. 274).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본 작품의 대화문은 정제된 문어체 대본(script)이라기보다 반복, 망설임, 불완전성 등 실제 구어 발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생생하게

6) 지암피에리(2025)에서는 “Translate the following text into English / colloquial American English”와 같이 맥락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명령어만 입력되는 채로 프롬프트를 적용하였다.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야샤르를 비롯한 등장인물의 발화에는 'ište(자)', 'yani(즉, 'hani(있잖아)' 등 튀르키예어 고빈도 담화표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발화의 현실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비유창성, 감정 상태, 성격 및 처한 상황에 대한 태도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문체적 장치로 활용한다.

성공적인 번역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ST 대화문에 내재된 이러한 화용적 효과를 TT에서도 효율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소설은 기계번역 모델이 특정 상황에 처한 화자의 성격과 태도 등 화용론적 의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재현하는지 고찰하기에 최적화된 텍스트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두 번역 엔진이 이러한 담화적·화용적 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번역해 내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2 분석 대상 담화표지

데미라이(Demiray, 2019)에 따르면 튀르키예어 구어 담화에서 ‘ya(아, 어, 아니)’ ‘yani(즉, 다시 말해, 그러니까)’, ‘şey(그, 뭐)’, ‘ište(자, 바로)’, ‘mesela(가령)’, ‘hani(있잖아, 어디)’, ‘falan(등등), bak(어이, 봐봐) 등이 고빈도 담화표지로 출현한다고 하였다. 이들 가운데 『생사불명 야샤르』의 대화문에서 ‘ište’, ‘yani’, ‘hani’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발화 맥락과 사용역(register)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실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기타 담화표지는 작품 내 출현 빈도가 매우 낮거나 확인되지 않아, 기능적 변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자료적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분한 용례 확보가 가능한 ‘ište’, ‘yani’, ‘hani’의 세 담화표지를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ST에서 수행하는 텍스트적 및 대인관계적 기능이 구글 번역과 ChatGPT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 항목의 사전적 한국어 대응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항목의 사전적 대응⁷⁾

ışte	자, 바로, 이, 여기, 이것 봐!, 바로 이것, 바야흐로, ~라고,
yani	즉,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단지, 다만, 오직, 소위, 예컨대, 그러니까
hani	자!, 어디!, 있잖아, 아니 그래서, 알다시피, ~잖아

상기 표에서 각 담화표지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의는 일부 대표적 용례나 맥락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므로 실제 담화 상황에서 실현되는 기능적 의미의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담화표지는 발화자의 의도와 담화 맥락에 따라 기능이 확장되며, 사용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화용적 의미를 획득하므로, 그 담화적 기능을 단일하게 규정하기 어렵다(Aijmer, 2002, pp. 24-26). 예컨대, 주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으로 설명되는 ‘ışte(자)’는 사용 맥락에 따라 화제의 시작, 진전, 전환, 마무리와 같은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화자의 관심 표시, 청자의 주의 환기, 주장 강화 등 교감적 내지 대인관계적 기능을 실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담화표지의 정확한 의미와 기능은 개별 용례가 놓인 담화 맥락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다음 <표 2>는 ‘ışte(자)’를 텍스트적 기능과 대인관계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ışte(자)’의 기능 정리 (Çetin & Yıldız, 2021, p. 2260)

텍스트적 기능	대인적 기능
화제 시작, 마무리	발언권 유지
대상 지시	말차례 가져오기
이전 화제로 재개	주장 강화 / 확신
구정보 / 신정보 표시	관심 표시 / 주의 집중
간접화법 표시	불만 표시 / 반박
대상 강조	주장 제시
응답 예고	얼버무리기 / 허사
요약 / 부연 설명	설득

<표 3>에서 ‘yani(즉)’의 텍스트적 및 대인관계적 기능을 세분화하였다.

표 3

‘yani(즉)’의 기능 정리 (Yılmaz, 2004, p. 68; 아이딘, 2023, p. 51)

텍스트적 기능	대인적 기능
화제 시작	발언권 유지
화제 진전	주장 강조
화제 마무리	공유 지식 표시
주제 확장	동의 / 확인 요청
요약 / 평가	명제에 대한 믿음 표시
발화 수정	감정 표시
응답 예고	주의 집중
예시화	발언 재촉

마지막으로 <표 4>에서 ‘hani(있잖아)’의 텍스트적 및 대인관계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hani(있잖아)’의 기능 정리 (Akar & Öztürk, 2020; 아이딘, 2023, p. 54)

텍스트적 기능	대인적 기능
구정보 강조	대답 요구 / 발언 재촉
구정보 상기	이의 제기
공유 정보	동의 / 확인 요청
질문 강조	기대 / 불만 표시
의문사 (어디)	허사

3.3 연구 방법

3.3.1 사례 구축 및 분석 방법

ST에 나타난 ‘işte(자)’, ‘yani(즉)’, ‘hani(있잖아)’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이 포함된 대화문 총 90개를 발췌하고 2006년에 출판된 번역본으로 번역 쌍을 구축하였다. 사례 구축 과정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담

화표지 용례를 기계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 분석의 타당성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별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화 참여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특정 인물의 발화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례는 배제하였다.

둘째, 담화 맥락과 장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는 사례는 제한적으로 포함하였다.⁸⁾

셋째, 담화표지가 수행하는 기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기능에만 집중되는 용례는 중복으로 발췌하지 않았다.

이처럼 담화표지의 다층적 기능을 폭넓게 관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 각 담화표지가 포함된 발화는 전후 발화 맥락과 함께 발췌하였다. 이는 담화표지가 단일 문장 차원에서 의미를 고정적으로 갖기보다, 선·후행 발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담화표지가 등장하는 문장뿐만 아니라, 해당 발화가 놓인 담화 흐름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선별된 대화문을 대상으로 구글 번역과 ChatGPT를 사용하여 기계번역 결과를 도출하였다. 모든 번역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10일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각 시스템은 동일한 입력에 대해 1회 실행 결과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도출된 번역 결과는 박서영과 최희경(2019)과 아이딘(2023)의 분류를 참고하여, 담화표지 처리 양상에 따라 ‘담화표지로의 번역’, ‘비담화표지로의 번역’, ‘생략’의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기계번역을 고찰하는 연구의 특성상 오류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오역’ 범주 또한 추가하였다.⁹⁾ 각 범주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8) 주인공 야샤르는 작품 내에서 대화 비중과 담화표지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인물이다. 그의 발화에서 확인되는 담화표지 가운데 관용화된 표현이나 단순 말버릇으로 판단되는 용례는 중복적으로 발췌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işte böyle(바로 이렇게)’와 같은 굳은 표현은 15회 이상 출현하였으나, 사용 맥락과 화자가 서로 상이한 3개의 사례만 분석 데이터에 포함하였다.
 - 9) 인간 번역 결과는 각 번역 엔진의 담화표지 재현 방식 비교를 위한 대조군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인간 번역에 대해서는 기계번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오역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문학번역에서 번역가의 해석과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표현을 단순히 오역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기계

‘담화표지로의 번역’은 튀르키예어 담화표지가 한국어의 담화표지로 대응되어 번역된 경우를 의미한다. ‘비담화표지로의 번역’은 담화표지가 수행하는 화용적 의미가 유지되면서도 한국어에서 담화표지가 아닌 다른 문법적·어휘적 수단으로 재구성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테면 부사, 명사 또는 조사 등의 다른 품사로 전환, 종결어미나 연결어미로의 대체, 문장 유형이나 서법의 변환, 특정 어휘나 절의 반복을 통한 강조(반복법, *repetition*), 혹은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명시화 전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략’은 담화표지가 TT에서 어떠한 언어적 형태로도 실현되지 않았으나, 담화표지가 수행하던 화용적·맥락적 의미가 전체 발화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의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역’은 담화표지의 화용적 기능이 왜곡되거나 소실되어 발화의 의미가 부적절하게 전달된 경우를 의미하며, 화용적 의미 보존 여부와 문맥 적합성의 결여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3.3.2 번역 실험 설계

ChatGPT는 기존의 NMT와 달리 사용자의 개입으로 응답 조정이 가능하며 특정 프롬프트를 입력함으로써 번역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류친, 2024, p. 274; 홍서연, 2025, p. 229; Gao et al., 2024, p. 1).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atGPT의 프롬프트 적용 유무에 따른 번역 품질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제공하지 않은 제로샷(zero-shot) 번역과 더불어 역할 부여(persona-based), 번역 목표(goal), 그리고 맥락 정보(context)를 포함한 RGC 프롬프트를 적용하였다.¹⁰⁾ 본 연구에서 이러한 프롬프트 전략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hatGPT에 특정 전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모델이 주어진 작업을 일반적인 번역 과제가 아닌 문학번역이라는 특수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에

번역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의도적 해석이나 번역 전략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담화표지의 의미와 기능이 적절하게 재현되지 않은 경우를 오역으로 분류하였다.

10) 김현웅과 이상빈(2025, p. 148)에서 RGC 프롬프트를 AI가 수행할 역할(Role), 달성할 목표(Goal), 그리고 작업의 기본 맥락(Context)을 포함한 전략적 프롬프트로 정의하였다.

부합하는 응답을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Chen et al., 2025). 이는 모델이 출력하는 번역 결과의 문체적 일관성과 화용적 민감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번역 작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모델이 단순한 의미 전달에 그치지 않고 담화표지의 화용적 기능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번역 전략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하는 프롬프트는 단순히 ‘번역하라’는 지시보다 작업 수행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인 지시 방식으로 평가된다(김현웅과 이상빈, 2025, p. 151).

셋째, 담화표지는 발화 상황과 맥락에 강하게 의존하여 의미와 기능이 변화하는 언어 요소이므로, 각 예문의 화자와 청자, 이들의 관계, 장면 설명, 화자의 태도와 같은 맥락적 정보를 함께 제공할 경우,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TT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RGC 프롬프트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개별 문장이 아닌 담화 차원에서 해석하도록 유도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GC 프롬프트를 역할 부여, 목표 제시, 구체적인 번역 전략 제시, 그리고 출력 결과에 대한 통제 요소를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¹¹⁾ 그 구성 요소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ChatGPT의 담화표지 번역을 위한 RGC 프롬프트 구성

역할 부여	당신은 튀르키예어-한국어 문학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숙련된 번역가이다. 현재 Aziz Nesin의 Yaşar Ne Yaşar Ne Yaşamaz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목표 제시	당신은 인물 간의 대화를 번역할 때 <i>işte, hani, yani</i> 와 같은 담화표지를 직면할 경우, 해당 담화표지가 수행하는 화용적 기능에 주의하고 이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재현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담화표지를 고정된 대응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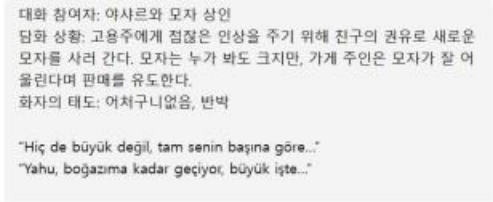
11) 역할 부여 프롬프트는 번역 작업 시작 전 1회 적용되었으며, 다수의 예문을 연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기 프롬프트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프롬프트를 중간에 1회 재제시하였다. 이는 번역 조건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프롬프트의 구성이나 내용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번역하지 않으며, 각 담화표지가 해당 맥락에서 수행하는 화제 시작, 진전, 마무리, 구정보 상기, 대상 강조, 발언 재촉, 주의 집중, 머뭇거림, 감정 표시 등의 담화적 기능을 고려하여 한국어 담화 관습에 맞는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구체적인 전략 제시	담화표지를 한국어의 담화표지로 치환하거나, 생략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명시화하는 등의 다양한 번역 기법을 활용하여, 원문의 화용 효과가 유지되도록 번역하라.
출력 결과 통제	번역 결과 외의 설명, 메타 발화, 인사말, 사과, 선택지 제안, 분석은 출력하지 말 것.

이러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나서 본격적인 번역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번역할 각 대화문과 함께 화자와 청자, 담화 상황, 그리고 화자의 태도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ChatGPT가 발화 상황에 따른 담화표지의 다의성에 유의하고, 문맥에 부합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1

RGC 프롬프트가 적용된 ChatGPT 번역 실험



전혀 안 커요, 딱 당신 머리에 맞는다니까요...

아니, 이봐요. 목까지 속 내려오잖아요. 이게 안 크면 뭘데요...

4. 분석 결과

4.1 정량분석

본 절에서 세 담화표지의 번역 양상을 담화표지로 번역, 비담화표지로 번역, 생략, 오역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음 <표 6>에서 전체 데이터를 합산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6
전반적인 정량적 분석 결과

번역 유형	TT1 인간 번역	TT2 구글 번역	TT3 GPT-제로샷	TT4 GPT-RGC
담화표지로의 번역	28 (31.1%)	22 (24.4%)	35 (38.9%)	36 (40.0%)
비담화표지로의 번역	47 (52.2%)	34 (37.8%)	45 (50.0%)	47 (52.2%)
생략	15 (16.7%)	14 (15.6%)	3 (3.3%)	5 (5.6%)
오역	-	20 (22.2%)	7 (7.8%)	2 (2.2%)
합계	90			

<표 6>을 바탕으로 NMT와 LLM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구글 번역은 오역 비율이 22.2%로 가장 높았으며, ChatGPT는 제로샷과 RGC 프롬프트 적용 조건 모두에서 오역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특히 RGC 프롬프트를 적용했을 때 오역의 비율은 2.2%로 감소하여, 프롬프트 설계가 담화표지의 화용적 증가 구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구글 번역의 담화표지 생략 비율은 인간 번역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ChatGPT 제로샷과 RGC 프롬프트 적용 결과에서는 각각 3.3%와 5.6%로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이는 ChatGPT가 담화표지를 생략하는 것보다 한국어 담화표지의 사용이나 다른 언어적 형태로의 대체를 통해 TT

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모든 번역 결과에서 비담화표지로의 번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말어미로 대체’, ‘품사 전환(명사, 형용사, 부사, 조사, 보조사, 감탄사로 번역)’, ‘문장 유형의 변조’, ‘양태 표현으로 대체’, ‘반복’, ‘명시화’ 등의 다양한 세부적인 번역 기법을 포함하였다. 특히 인간 번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구글 번역과 ChatGPT에서도 확인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NMT와 LLM 역시 담화표지를 고정된 대응 단위로 처리하기보다는 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구성함을 보여준다.

서미령(2019)과 마이어(Meier, 2024)는 NMT가 담화표지를 제한적으로 처리하거나 생략함으로써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였으나, <표 6>에서 제시된 결과에서는 튀르키예어-한국어 번역 맥락에서 담화표지가 다양한 형태로 TT에 반영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경향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으로, 최근 기계번역 시스템의 화용적 해석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고되었음을 시사한다.

세 담화표지는 번역 과정에서 서로 다른 처리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항목별 세부 양상 또한 다를 필요가 있다.

표 7
'iste(자)'의 번역 유형 분포

번역 유형	TT1	TT2	TT3	TT4
담화표지로의 번역	6 (17.1%)	5 (14.3%)	6 (17.1%)	6 (17.1%)
비담화표지로의 번역	24 (68.6%)	16 (45.7%)	24 (68.6%)	25 (71.4%)
생략	5 (14.3%)	5 (14.3%)	1 (2.9%)	3 (8.6%)
오역	-	9 (25.7%)	4 (11.4%)	1 (2.9%)
합계	35			

<표 7>에서 제시된 'iste'의 경우 모든 TT에서 어말어미나 부사 등의 비

담화표지로 재구성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담화표지로 유지된 경우, ‘자’ ‘뭐’, ‘내 말은’, ‘말이야’, ‘음’, ‘그냥’과 같은 한국어 담화표지가 확인되었다.

‘iste’의 번역에서 오역의 비율은 구글 번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MT의 화용론적 등가 성공률이 74.3%에 그쳤다. ChatGPT 제로샷 출력의 성공률은 88.6%로, 구글 번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RGC 프롬프트를 적용한 ChatGPT에서는 해당 비율이 97.1%로 나타나, 사용자의 프롬프트 설계를 통한 개입이 담화표지의 화용적 기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출력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프롬프트 기반 상호작용이 번역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류친, 2024; 이선화, 2023; Yamada, 2023)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

표 8
‘yani(즉)’의 번역 유형 분포

번역 유형	TT1	TT2	TT3	TT4
담화표지로의 번역	18 (60.0%)	14 (46.7%)	19 (63.3%)	21 (70.0%)
비담화표지로의 번역	6 (20.0%)	5 (16.7%)	7 (23.3%)	6 (20.0%)
생략	6 (20.0%)	4 (13.3%)	1 (3.3%)	2 (6.7%)
오역	-	7 (23.3%)	3 (10.0%)	1 (3.3%)
합계	30			

‘yani’는 전반적으로 담화표지 형태로 유지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그러니까’로의 대응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아니’, ‘그럼’, ‘그래서’, ‘뭐’, ‘말이야’ 등 다양한 한국어 담화표지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yani’가 수행하는 [발화 수정] 또는 [의미 명확화], [화제 진전] 등의 텍스트적 기능이 한국어 담화표지로 안정적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자의 감정 상태나 태도를 표시하는 대인관계적 기능의 해

석에 있어 세 엔진 모두 오류를 범하였다.¹²⁾ 특히 구글 번역의 오역 가운데 6건이 대인관계적 기능의 해석·처리 실패로 확인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ChatGPT는 제로샷 결과물에서 90%의 성공률을 보였으나, RGC 프롬프트를 적용했을 때 그 정확도가 96.7%로 상승하여 프롬프트 설계가 번역 품질 향상에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hani(있잖아)'의 번역 유형 분포

번역 유형	TT1	TT2	TT3	TT4
담화표지로의 번역	4 (16.0%)	3 (12.0%)	10 (40.0%)	9 (36.0%)
비담화표지로의 번역	17 (68.0%)	13 (52.0%)	14 (56.0%)	16 (64.0%)
생략	4 (16.0%)	5 (20.0%)	1 (4.0%)	0 (0.0%)
오역	-	4 (16.0%)	0 (0.0%)	0 (0.0%)
합계	25			

마지막으로 <표 9>에서 'hani'의 번역 양상을 정리한다. 사전적 대응어가 '있잖아'로 제시된 'hani'는 각 TT에서 한국어 담화표지 '아니', '말이야', '그러니까', '자', '있잖아'로 다양하게 치환되었다.

구글 번역의 화용적 번역 성공률은 'hani'의 번역에서 84%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두 담화표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제로샷 및 RGC 프롬프트를 적용한 ChatGPT에서는 오역이 관찰되지 않아, 구글 번

12) 본 연구에서 관찰된 오역 사례를 담화 기능별로 재분류한 결과 텍스트적 기능에 비해 화자의 태도와 감정의 의미를 실현하는 대인관계적 기능에서 오역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구글 번역의 텍스트적 기능 오역은 총 6건, 대인관계적 기능 오역은 1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ChatGPT 제로샷은 각각 2건과 5건, RGC 프롬프트 출력물은 각각 1건씩 확인되었다. 이는 두 엔진이 발화의 논리적 구조보다는 대인관계적 의미를 포착하고 구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지님을 시사한다.

역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hani’는 [발화 도입], [공유 지식 표시], [구정보 상기] 및 [발언 재촉] 등의 담화 기능이 ‘işte’와 ‘yani’에 비해 비교적 명시적으로 실현되는 담화표지로서, 세 항목 가운데 기능적 해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hani’는 기계번역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LLM 기반 번역에서 담화 맥락에 대한 이해가 번역 결과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구체적인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işte(자)’, ‘yani(즉)’, ‘hani(있잖아)’의 번역 양상을 대표 사례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한다. 각 담화표지의 화용적 기능이 TT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존과 왜곡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4.2.1 화용적 기능의 보존

<예시 1>

ST: “Bunun işimize gelip gelmemesi de ne, Memur Bey? Biz oğlanı hükümet okuluna yazdıracağımızdan nüfus kağıdı gerekti, **i te bu...**” (p. 35)

TT1: 지금 내게 유리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니가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p. 50)

TT2: “경찰관님¹³⁾, 이게 편리하든 불편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는 아들을 공립학교에 등록시키려고 신분증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26.01.03 출력)

TT3: “이게 우리 일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가 무슨 상관입니까, 직원님? 아들을 국립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뿐이에요...**” (26.01.05 출력)

TT4: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할 문제입니까, 공무원님? 아이를 국립학교에 보내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해서 온 것뿐입니다.**” (26.01.09 출력)

13) 본 연구는 담화표지의 번역 양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담화표지 외의 번역 오류는 밀줄로만 표시하였으며, 오역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야샤르의 아버지는 공문서상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들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에게 반박한다. 문미에 출현하는 ‘ište bu’는 화자의 주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발화를 종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TT1에서는 ‘ište’를 ‘-는 거죠’ 어미로 재현하였는데, 해당 어미는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고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따라서 TT1은 원문의 [주장 강조] 및 [화제 마무리] 기능을 모두 적절히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든 기계번역 결과에서는 ‘ište bu’가 수행하는 강조 및 종결의 기능이 한정 보조사 ‘뿐’으로 치환되었다. ‘뿐’은 ‘오직 그러함’을 의미하는 한정 표현으로, 해당 맥락에서 야샤르 아버지가 주장을 확립하고 발화를 매듭짓는 뉘앙스를 효과적으로 재현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시 1>에서 ‘ište’가 사전적 대응어로 제시되는 ‘자’나 ‘바로’가 아니라 한국어의 어말어미로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이 담화표지가 맥락에 따라 수행하는 다양한 화용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튀르키예어 담화표지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 담화표지로의 직접 대응보다 어말어미를 활용하는 방식이 화용적 기능을 보존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례는 NMT와 LLM이 담화표지 ‘ište’를 사전적 의미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발화 맥락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인간 번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화용론적 등가 구현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시 2>

ST: -Siz gene iyi kötü yaşıyorsunuz azbuçuk... Ben hiç yaşamıyorum, hepten yokum...

-Yani sen şimdi yaşamıyor musun? (p. 30)

TT1: “형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웃고 떠들며 살고 계시잖아요. 전 살아 있지 않아요. 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넌 지금 이렇게 멀쩡한 사지를 두고도 살아 있지 않다는 거냐?” (pp. 40-41)

TT2: “당신은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난 아예 살아있지 않아, 완전히

존재하지 않아...”

“그럼 당신은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건가요?” (26.01.02 출력)

TT3: “당신들은 그래도 그럭저럭은 살고 있잖아요... 나는 전혀 살고 있지 않아요, 아예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넌 살아 있지 않다는 거야?” (26.01.05 출력)

TT4: “여러분은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씩은 살아 계시잖습니까... 저는 아예 살고 있질 않습니다, 완전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살아 있지 않다는 거냐?” (26.01.08 출력)

<예시 2>는 야샤르가 수감 직후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신이 공식적으로 생사 불명임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자신의 황당한 사연을 ‘나는 살아 있지 않다’라고 다소 역설적으로 제시하자, 청자가 그 의미를 재확인하는 발화가 이어진다. 이때 사용된 ‘yani’는 선행 발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확인 요청] 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언을 그대로 말하면서 그 타당성을 점검하는 화용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적 기능과 대인관계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는 TT1, TT3, TT4에서 ‘그러니까’로, TT2에서는 ‘그럼’으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담화표지 ‘그러니까’는 화자가 앞선 발화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서 이를 제시하거나 이해를 확인할 때 빈번히 사용된다. 따라서 이는 튀르키예어 ‘yani’가 수행하는 [의미 재확인], [확인 요청] 기능과 화용적으로 긴밀하게 대응한다.

한편 ‘그럼’은 선행 발화를 전제로 삼아, 그로부터 귀결되는 상황이나 판단을 확인하는 용례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의 준말로, 화자가 야샤르의 발언을 수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네 말대로라면 네가 살아 있지 않다’라는 논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예시에서 ‘그러니까’와 ‘그럼’은 모두 ‘yani’의 [확인 요청] 기능을 한국어 담화체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화용론적 평가가 구현된 사례로 평가하였다.

<예시 3>

ST: Ne yaptılarsa, yiyecekleri farelerden koruyamıyorlarmış. Sonunda bekçi de benim gibi, eczaneden bir şişe fare zehri almış. **Hani**, damlası değil

insanı zehirler diye tarifesinde yazılı olan zehirden. Bir şişe zehiri, ekmek lokmalarına bulayıp evin orasına burasına koymuşlar. (p. 222)

TT1: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야경꾼도 저처럼 약국에서 쥐약 한 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로 천 마리의 쥐를 죽일 수 있다는 **그 약 말입니다**. 쥐약 한 병을 빵에 발라 집 안 여기저기에 놓았다고 합니다. (p. 321)

TT2: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쥐로부터 음식을 지킬 수 없었어요. 결국 경비원도 저처럼 약국에서 쥐약 한 병을 샀죠. **아시다시피**, 한 방울만 먹어도 사람이 중독될 정도로 강력한 쥐약 **말이에요**. 그들은 빵 조각에 쥐약을 발라서 집안 곳곳에 뒀어요. (26.01.06 출력)

TT3: 아무리 해 봐도 먹을거리를 쥐들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었다더군요. 결국은 경비원도 나처럼 약국에서 쥐약 한 병을 사 왔습니다. 설명서에 한 방울만 닿아도 사람을 중독시킨다고 적혀 있는 **그 독약 말이에요**. 그 한 병의 독약을 빵 조각들에 묻혀서 집 여기저기에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26.01.06 출력)

TT4: 아무리 해도 먹을 걸 쥐들한테서 못 지키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경비도 저항 마찬가지로 약국에 가서 쥐약 한 병을 사 온 거죠. 한 방울만 닿아도 사람을 죽인다고들 하는, **바로 그 약 말입니다**. 그걸 빵 조각에 잔뜩 묻혀서 집 안 여기저기에 놓아뒀다는 거예요. (26.01.08 출력)

<예시 3>에서 야사르는 쥐약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 ‘hani’를 통해 해당 독약이 특별한 설명 없이도 죄수들이 이미 알고 있을 법한 대상임을 표시한다. 이 맥락에서 ‘hani’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배경지식(common shared knowledge)을 환기하는 [공유 지식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네 가지 TT 모두에서 적절하게 재현되었다. TT1에서는 ‘그러니까 ~ 그 ~ 말입니다’라는 구문을 통해 설명 도입 및 공유 지식 환기 기능을 자연스럽게 재구성하였다.

TT2에서는 ‘아시다시피 ~ 말이에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청자의 사전 지식을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hani’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아시다시피’는 화자와 청자 간 인지적 공통분모를 전면에서 드러내는 표현으로, 원문의 화용적 효과를 충실히 전달한다.

TT3과 TT4 역시 ‘그 ~ 말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와 같은 지시적 표현과 담화표지 “말이다” 통해 특정 대상을 지칭함으로써 해당 독약이 이미 공유된 정보임을 전제하는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였다.

4.2.2 화용적 기능의 왜곡

<예시 4>

ST: “Haa, sen bunu İbrahim Bey’e götüreceksin...”

“İbrahim Bey... Kim İbrahim Bey?”

“Hoppalaaa! İbrahim Bey de kim diye sorulur mu? Bu dairede memur **i te...**” (p. 75)

TT1: “아, 이 서류는 이브라힘 씨에게 제출하세요.”

“이브라힘 씨요? 이브라힘 씨가 누구죠?”

“지금 저한테 이브라힘 씨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부서의 **장이잖아요!**” (p. 113)

TT2: “아, 이걸 이브라힘 씨에게 가져다주시려는 거군요...”

“이브라힘... 이브라힘 씨가 누구세요?”

“**잠깐!** 이브라힘 씨가 누군지 물어보면 안 돼요! 그는 **그냥** 이 사무실의 사무원일 **뿐이에요...**” (26.01.03 출력)

TT3: “아, 이걸 이브라힘 씨에게 가져다주면 돼...” 하고 말했다.

“이브라힘 씨요... 이브라힘 씨가 누구죠?”

“어이쿠! 이브라힘 씨가 누구냐고 묻는 게 말이 되나? 이 사무실 직원이**잖아...**” (26.01.05 출력)

TT4: “아, 이걸 이브라힘 씨한테 가져가세요...”

“이브라힘 씨요... 이브라힘 씨가 누구십니까?”

“아이고 참! 이브라힘 씨가 누구냐고 물어봅니까? 이 부서 직원이**잖아...**” (26.01.08 출력)

위 예문에서 ‘ište’는 상대방의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담화표지로, 이미 알고 있어야 할 사실에 대한 자명함과 편잔을 동시에 실현한다. 인간 번역(TT1)과 ChatGPT 출력물(TT3, TT4)은 모두 이러한 화자의 태도를 적절하게 재현하였다. 특히 ‘**잖아**’와 같은 종결어미는 한국어에서 강조, 반박, 불만의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 원문의 화용적 효과

를 충실하게 구현한다.

반면 구글 번역(TT2)은 ‘işte’를 ‘그냥 ...일 뿐이에요’로 처리함으로써, 이를 한정 의미로 오해하였다. 원문에서 강조되던 ‘당연히 알아야 할 인물’이라는 자명성은 약화되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무원’이라는 평가로 의미가 왜곡되었다. 이는 화자가 상대를 편견하는 맥락과 정반대의 해석으로, 담화표지가 전달하는 화용론적 의미를 간과하지 못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예시 1>과 같은 맥락에서는 ‘뿐이다’ 구문이 ‘işte’의 종결·강조 기능을 비교적 적절히 재현했으나, 본 예시에서는 동일한 번역 전략이 오히려 화용적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işte’가 지닌 의미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를 단일한 어휘 대응이나 의미 범주로 처리할 경우 화자의 태도와 발화 의도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NMT가 담화표지를 ‘한정’과 같은 어휘적 의미에 우선적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인간 번역과 LLM은 발화 상황에서 드러나는 편견, 반박, 불만 등의 대인관계적 기능을 고려하여 번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시 5>

ST: “Nedir, n’olmuş komutan?”

“Daha n’olsun, bugüne dek hatırımlı saydık... Yani senin oğlunu zorlamı askere göndereceğiz?” (p. 48)

TT1: “아니, 무슨 일이라니? 나아말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어르신을 얼마나 존경해 왔는데, 어르신 아드님을 **이렇게** 강제로 군대에 **보내야만** 되겠습니까?” (p. 70)

TT2: “무슨 일입니까, 사령관님?”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존경해 왔는데... **이제** 당신 아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겠다는 겁니까?**” (26.01.02 출력)

TT3: “무슨 일입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휘관님?”

“문제라니, 더 무슨 일이 있겠나. 지금까지는 봐줬지... **그러니까** 네 아들을 억지로 군대에 **보내야 하겠다는 거냐?**” (26.01.05 출력)

TT4: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사령관님?”

“무슨 일이냐니요, 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까지는 체면 봐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당신 아들을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서 군대에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26.01.08 출력)

이 장면에서 사령관은 아샤르가 병역기피자로 수배된다는 사실을 그의 아버지에게 통보한다. 그의 어조에는 존경해 온 인물에게 실망했다는 배신감과 섭섭함이 동시에 드러난다. 여기서 ‘yani’는 발화 내용을 수정하거나 논리적 관계를 제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상대를 질책하면서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는 장치로서 대인관계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예시 2>에서 확인된 [이해 재확인] 또는 [확인 요청]의 의미로 사용된 ‘그러니까’와는 구별되는 용법이다.

TT1은 “이렇게 ~ 만 되겠습니까”라는 수사 의문문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질책과 실망의 정서를 충실하게 전달하였다. ST에서 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닌 반어적 의문문으로 실현된 발화가 TT에서도 동일한 화용적 기능을 유지하였다. 이는 형식적 대응 없이도 발화의 대인관계적 의미를 적절히 구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TT2는 ‘yani’를 시간 부사와 단순 의문문으로 재구성하여, 의미적 왜곡을 초래하였다. 특히 “아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겠다는 겁니까?”라는 표현은 청자(아샤르의 아버지)를 행위의 주체로 오인하게 하여,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일부러 병역기피자로 만든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이는 원문의 의미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화자의 질책과 섭섭함 또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 오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TT3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행위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의미를 왜곡하였다. 더 나아가 해라체 의문형 어미 “-냐”의 사용은 화자가 청자를 무시하는 뉘앙스를 형성하여, 원문에서 전제되는 존중과 체면 의식의 맥락과 상반된다. 그 결과 화자의 감정이 전달되지 못하고 공격적 어조로 환원되었다.

TT4 또한 “그러니까”를 활용하여, 선행하는 발화에 이어서 인과 관계를 표시하는 의미로 재구성하였다. 더불어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라는 표현은 상황을 확인하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어, ST 발화에 내재된 질책과 서운함이라는 핵심 정서가 충분히 재현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가서” 등 불필요한 부사어와 서술어를 과도

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조는 ST에서 짧고 간결하게 표출된 실망과 질책의 뜻을 약화하고, 사령관이 상황을 구구절절 해명하는 듯한 분위기를 강화하였다. 이는 감정의 강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발화의 화용적 초점을 이동시킨 오역 사례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TT2, TT3, TT4는 모두 상대의 의사를 묻거나 확인하는 어조로 재구성되면서 ST의 대인관계적 기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 <예시 5>는 세 가지 기계번역 결과가 모두 동시에 오역을 범한 유일한 사례이다.

<예시 6>

ST: “Ne demek, yahu beni tanımadın mı… Tanımadınız mı yoksam? Ben Yaşar değil miyim? **Hani** geçen gün kucaklayıp sarılıp da… öpüşmüştük ya…” (p. 132)

TT1: “그게 무슨 말이야, 사틀무시? 날 알아보지 못하겠어? 아니, 절 정말 알아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사트 씨? 나야, 야샤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절 껴안고 입까지 맞추지 않으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p. 194)

TT2: “날 못 알아보겠다고? 정말 못 알아보겠어? 내가 야샤르가 아니야? 며칠 전에 우리 껴안고 키스했던 거 **기억나?**”(26.01.05 출력)

TT3: “무슨 소리예요, 설마 저를 못 알아보신 겁니까… 정말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야샤르잖아요. **Ø** 며칠 전에 서로 껴안고… 입 맞추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요…**” (26.01.05 출력)

TT4: “뭐라는 겁니까, 야…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아니, 못 알아보신 겁니까? 나 야샤르잖아. 지난번에 **말이야**,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그랬잖아…**” (26.01.08 출력)

<예시 6>의 화자는 야샤르이며, 청자는 그의 고향 친구 사틀무시이다. 정치인이 된 이후 개명까지 한 사틀무시는 고향 사람들이 찾아오면 모른 척하는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 이 장면에서 야샤르는 친구의 태도에 실망하여 담화표지 ‘hani’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상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배신감과 당혹감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hani’는 단순한 회상 표지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표시하면서 상대의 현재 태도를 문제화하는 대인관계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야샤르의 발화는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모를 리 없잖아”라는 전제를 내포한 반문에 가깝다.

TT2는 이를 “기억나?”로 번역하여 중립적인 회상 요청에 가까운 의미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표현은 상대의 태도를 질책하는 전제나 배신감의 정서를 충분히 재현하지 못한다. 그 결과 ‘hani’가 실현하는 대인관계적 기능이 약화되어 문맥상 부적절한 번역으로 판단된다. 이를 “기억 안 나?”와 같은 부정 의문문으로 번역하였다면, ST의 반문적 뉘앙스에 더 근접했을 것이다.

한편 TT3은 문미에서 명사구와 줄임표(“그 사람이요...”)를 활용하여 화자와 청자 사이의 공유된 사실, 즉 ‘자신’을 강조하고, 당혹감이 섞인 여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TT4 역시 “지난번에 말이야”로 청자의 주의를 환기한 뒤, 종결어미 “-잖아”와 줄임표를 결합하여 당연함과 당혹감의 정서를 드러냈다. 이에 TT3과 TT4는 ‘hani’의 교감적 기능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재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튀르키예어 담화표지 ‘işte(자)’, ‘yani(즉)’, ‘hani(있잖아)’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NMT와 LLM이 담화표지의 화용적 기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생사불명 야샤르』의 대화문을 바탕으로 구글 번역(NMT), 제로샷(zero-shot) ChatGPT, 그리고 RGC 프롬프트를 적용한 ChatGPT의 번역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저자원 언어 쌍인 튀르키예어-한국어에서 기계번역의 담화 이해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프롬프트가 적용된 LLM(97.8%)이 제로샷 LLM(92.2%)과 NMT(77.8%)에 비해 가장 높은 화용적 등가 구현 성공률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 범위 내에서, LLM이 NMT보다 담화 맥락 이해 및 화용적 기능 재현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수행 양상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분석 대상과 모델이 제한적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프롬프트를 통한 추가적인 맥락 제공이 기계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예측 가능한 결과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모델의

비교는 기계번역의 담화 처리 메커니즘에 관한 중요한 학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NMT와 제로샷 LLM의 성과 차이는 기계번역이 문장 단위의 표면적 대응(NMT)을 넘어, 담화 전체의 거시적 맥락을 반영하는(LLM) 패러다임으로 진일보했음을 저자원 언어 쌍에서 실증한다. 둘째, 제로샷과 프롬프트 적용 LLM의 비교는 다의성이 높고 문맥 의존적인 담화표지의 번역에 있어 인간과 AI 상호작용의 효용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한다. 이는 단순한 번역 성능의 우열 확인을 넘어, 문학 텍스트의 기계번역에서 화자의 처지와 감정 등 화용적 맥락 정보를 부여하는 프롬프트 설계가 필수적인 번역 전략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번역 양상을 ‘담화표지로의 번역’, ‘비담화표지로의 번역’, ‘생략’, ‘오역’으로 세분화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NMT와 LLM 둘 다 오역을 산출하기는 하였으나, 오역을 제외한 번역 유형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인간 번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세 엔진 모두 인간 번역과 마찬가지로 ‘işte(자)’와 ‘hani(있잖아)’를 비담화표지 형태로 재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yani(즉)’를 담화표지로 치환하는 등 맥락 중심의 유연한 대응 분포를 보였다. 만약 기계번역이 담화표지로의 직접 대응에만 편중된 결과를 보였다면 맥락 이해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기계번역이 더 이상 발화 요소를 형식적 대응 단위로만 처리하지 않고 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뒷받침한다.

이는 담화표지 번역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기존 연구(김지은, 2020; 심란희, 2025; González, 2012)의 타당한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도, 인간 번역 중심의 논의가 다루지 못했던 기계번역의 담화 수준 재구성 능력을 새롭게 규명한 것이다. 특히 기존 논의들이 번역 과정에서의 ‘생략’을 주로 누락이나 의미 손실로 간주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본고에서는 문맥의 자연스러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생략이 ST의 담화적 분위기를 TT에 재현하기 위한 하나의 유효한 화용론적 번역 전략으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기계번역은 형태적 변형이나 생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화용적 등가를 산출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작

품에서 추출한 소규모 코퍼스(90문장)와 특정 모델(구글 번역, ChatGPT)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따른다. 향후 AI 번역 기술의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대규모 데이터 및 Gemini, Claude 등 다양한 생성형 AI를 포함한 다각적 비교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한 수동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 주석자 간 신뢰도 (inter-annotator agreement) 검증 등 오역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역할, 목표, 맥락)가 번역 품질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요인 분해 실험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튀르키예어-한국어 단방향 번역만을 다루었으므로 번역 방향의 역전에 따른 담화표지 처리 양상 변화를 탐색하는 작업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관련 연구가 미비한 튀르키예어-한국어라는 저자원 언어 쌍에서 AI 번역을 고찰하는 논의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고가 향후 해당 언어 쌍의 번역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AI 기반 화용론적 번역 연구를 수행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유의미한 참고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Nesin, A. (2006). 생사불명 야샤르 (이난아 번역). 푸른숲. (Original work published 1977)

<2차 자료>

김지은. (2020). 담화표지 번역 연구 — 차오위(曹禺)의 『뇌우(雷雨)』 중 비(非)에 어휘형 담화표지 감탄사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87, 345-369.

김지은. (2022). 희곡에서 담화표지의 번역 고찰 — 담화표지 ‘什么’의 중한 번역. 중국문학연구, 88, 291-318.

김향화. (2001).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 28, 113-140.

- 김현웅, 이상빈. (2025). AI 문학번역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번역 오류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번역학연구*, 26(3), 147-171.
- 김희자. (2002). 독일어 양상불변화사 doch의 우리말 번역 가능성. *독어학*, 5, 223-251.
- 류친. (2024). GPT를 활용한 중-한 문학번역에 대한 고찰 — 장편 소설 “인생(活著)”의 관용구 번역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6(1), 273-287.
- 박서영, 최희경. (2019). 담화표지의 기능별 번역 양상 연구: 영한 더빙텍스트 코퍼스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1), 1-30.
- 서미령. (2019). 한국어 담화표지 ‘아’의 중국어 대응 번역 연구 —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외국학연구*, 50, 273-292.
- 심란희. (2025). 한국어 담화표지의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중국에서 번역·출간된 한국 소설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32(1), 131-158.
- 아이딘. (2023). 튀르키예어 담화표지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 소설 『생사 불명 야샤르』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우경조. (2019). 영화 <어바웃 타임>에 나타난 담화표지 번역 양상 분석 및 번역 대안 제시 — ‘well’과 ‘you know’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38, 67-92.
- 유한내. (2014). 담화표지 ‘now’의 기능별 번역 양상 연구: 영화자막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4), 97-117.
- 이선화. (2023). 챗GPT를 적용한 번역수업 실천 사례 연구: 학부생 번역 과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3), 351-379.
- 이유라, 유석훈. (2020). 영어 -ly 유형 인식건지부사의 담화표지 기능 이해도 분석: 한국인 EFL 학습자와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어학연구*, 56(3), 383-405.
- 이은령. (2022). 담화표지 ‘tu sais’와 한국어 자막번역의 담화전략. *프랑스학연구*, 100, 145-167.
- 임소영, 임소정. (2023). 구어체 한-중 AI번역의 오류 양상 연구 — 넷플릭스 「솔로지옥」 발화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92, 299-330.
- 홍서연. (2025). AI 번역기의 한러 번역성능 비교 — 파파고, 구글, 챗GPT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9(1), 207-233.
- Aijmer, K. (2002). *English discourse particles*. John Benjamins Publishing.

- Akar, D., & Öztürk, B. (2020). The discourse marker hani in Turkish. In P. Modicom & O. Duplâtre (Eds.), *Information-structural perspectives on discourse particles* (pp. 251-276).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rinton, L. J. (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De Gruyter Mouton.
- Brinton, L. (2010). Discourse markers. In A. H. Jucker & I. Taavitsainen (Eds.), *Historical pragmatics* (pp. 285-314). De Gruyter Mouton.
- Chaume, F. (2004). Discourse markers in audiovisual translating. *Meta*, 49(4), 843-855.
- Chen, Y.-C., Lee, S.-H., Sheu, H., Lin, S.-H., Hu, C.-C., Fu, S.-C., Yang, C.-P., & Lin, Y.-C. (2025). Enhancing responses from large language models with role-playing prompts: A comparative study on answering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otal knee arthroplasty. *BMC Medical Informatics and Decision Making*, 25(196), 1-8.
- Crible, L., Abuczki, Á., Burksaitienė, N., Furkó, P., Nedoluzhko, A., Rackevičienė, S., Oleškevičienė, G. V., & Zikánová, Š. (2019). Functions and translations of discourse markers in TED Talks: A parallel corpus study of underspecification in five languages. *Journal of Pragmatics*, 142, 139-155.
- Çetin, B., & Yıldız, F. U. (2021). Awareness of Turkish discourse markers: İşte. *International Journal of Eurasian Education and Culture*, 6(14), 2254-2289.
- Demiray, C. (2019). Türkçede günlük konuşma bağlamında kullanım sıklığı yüksek söylem belirleyicilerinin işlev ve konum özellikleri [튀르키예어 일상 대화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담화표지의 기능과 위치 특성] [Yüksek Lisans Tezi]. Dokuz Eylül Üniversitesi.
- Diem, P. N. (2023). Comparison of the discourse marker “well” with its equivalents in Gone with the Wind and the translation of Cuốn theo chiều gió. *Vinh University Journal of Science*, 52(1B), 17-29.
- Furkó, B. P. (2014). Perspectives on the translation of discourse markers. *Acta Universitatis Sapientiae: Philologica*, 6(2), 181-196.

- Galiano, L. (2024).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and Italian film dialogue: Distribution and translation. *Pragmatics*, 34(4), 501-533.
- Gao, Y., Wang, R., & Hou, F. (2024). How to design translation prompts for ChatGPT: An empirical study. *Proceedings of the 6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in Asia Workshops* (pp. 1-7).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Inc.
- Giampieri, P. (2025). Are NMT and LLMs effective in the translation of dialogues? *Status Quaestionis*, 29, 269-291.
- González, M. (2012). Pragmatic markers in translation. In J. Brumme & A. Espunya (Eds.), *The translation of fictive dialogue* (pp. 217-232). Brill.
- Hale, S. (1999). Interpreters' treatment of discourse markers in courtroom ques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the Law*, 6(1), 57-82.
- Hendy, A., Abdelrehim, M., Sharaf, A., Raunak, V., Gabr, M., Matsushita, H., Kim, Y. J., Afify, M., & Awadalla, H. H. (2023). *How good are GPT models at machine translation? A comprehensive evaluation*. arXiv. <https://arxiv.org/abs/2302.09210>
- Hu, A. (2020).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discourse marker “well” in friends under the perspective of adaption theory. *Open Access Library Journal*, 7(10), 1-8.
- İspir, E. (2006). Aziz Nesin'in romanları üzerine bir inceleme [아지즈 네신 소설에 대한 분석 연구] [Yüksek Lisans Tezi]. Selçuk Üniversitesi.
- Kafipour, R. (2016). Errors in the translation of discourse markers from English into Persian in movie subtitle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15), 1100-1105.
- Kruger, A. (2004). The role of discourse markers in an Afrikaans stage translation of the merchant of venice. *Journal of Literary Studies*, 20(3-4), 302-334.
- Kumar, S., Balloli, V., Ranjit, M., Ahuja, K., Sitaram, S., Bali, K., Ganu, T., & Nambi, A. (2025). Bridging the language gap: Dynamic learning strategies

- for improving multilingual performance in LLMs. *Proceedings of the 3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pp. 9209-9223).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Li, Z., Shi, Y., Liu, Z., Yang, F., Payani, A., Liu, N., & Du, M. (2025). Language ranker: A metric for quantifying LLM performance across high and low-resource languages. *Proceedings of the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39(27), 28186-28194.
- Meier, F. (2024). Dealing with common ground in human translation and neural machine translation: A case study on Italian equivalents of German modal particles. *AI-Linguistica. Linguistic Studies on AI-Generated Texts and Discourses*, 1(1), 1-34.
- Najafi, A., Varol, O. (2024). TurkishBERTweet: Fast and reliable large language model for social media analysi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255, 124737.
- Tarantini, A. T., & Benatti, R. (2021). Translating discourse markers in theater: David Mence's convincing ground in Italian translati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16(1), 80-100.
- Telek, D. (2023). Romandan filme uyarlamalar üzerine karşılaştırmalı bir analiz: Yaşar Ne Yaşar Ne Yaşamaz [소설의 영화적 각색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Yaşar Ne Yaşar Ne Yaşamaz 중심으로]. *Kocaeli Üniversitesi İletişim Fakültesi Araştırma Dergisi*, 22, 65-75.
- Toraman, C. (2024). *LlamaTurk: Adapting open-source generative large language models for low-resource language*. arXiv. <https://doi.org/10.48550/arXiv.2405.07745>
- Yamada, M. (2023). Optimizing machine translation through prompt engineering: An investigation into ChatGPT's customizability. *Proceedings of Machine Translation Summit XIX*, 2, (pp. 195-204).
- Yılmaz, E. (2004). *A pragmatic analysis of Turkish discourse practicles: Yani, işte and şey* [Doctoral dissertation].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AI-based translation of Turkish discourse markers into Korean: A study of dialogues in “Ya ar Ne Ya ar Ne Ya amaz”

F. H. Kubra Aydin (corresponding author, fhka266@gmail.com)

Department of KFL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nmi Y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kar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urkish discourse markers are translated into Korean in literary texts, with a focus on the pragmatic processing capabilities of AI-based machine translation systems. Using the Turkish novel “Yaşar Ne Yaşar Ne Yaşamaz” as the primary source, three high-frequency discourse markers—*işte*, *yani*, and *hani*—were analyzed across four target texts: a published human translation, Google Translate output, ChatGPT zero-shot output, and ChatGPT output with an RGC (Role-Goal-Context) prompt. Each translation was assessed in terms of pragmatic equivalence and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discourse marker, non-discourse marker, omission, and mistranslation. The findings reveal that discourse markers were not systematically omitted but were frequently restructured into non-discourse-marker forms such as sentence-final endings, particles, and adverbs in Korean. ChatGPT demonstrated notably higher pragmatic equivalence than Google Translate, with accuracy reaching 97.8% under RGC prompt conditions, compared to 77.8% for Google Translat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LM-based translation systems are better able to interpret discourse markers in context and that prompt design can substantially enhance translation performance. This study contributes to emerging discussions on AI-assisted literary translation, particularly regarding the pragmatic handling of discourse markers in the underexplored Turkish-Korean language pair.

Keywords: Literary translation; discourse markers; pragmatic equivalence; machine translation; AI translation; low-resource language

키워드: 문학번역, 담화표지, 화용론적 등가, 기계번역, AI 번역, 저자원 언어

아이딘(제1저자/교신저자, <https://orcid.org/0009-0002-4101-9843>)

한국의국어대학교 KFLT전공 박사과정 수료

fhka266@gmail.com

유은미(공동저자, <https://orcid.org/0000-0002-3297-7874>)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전임강사

eunmi2010@gmail.com

논문 투고일: 2026년 2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3월 16일